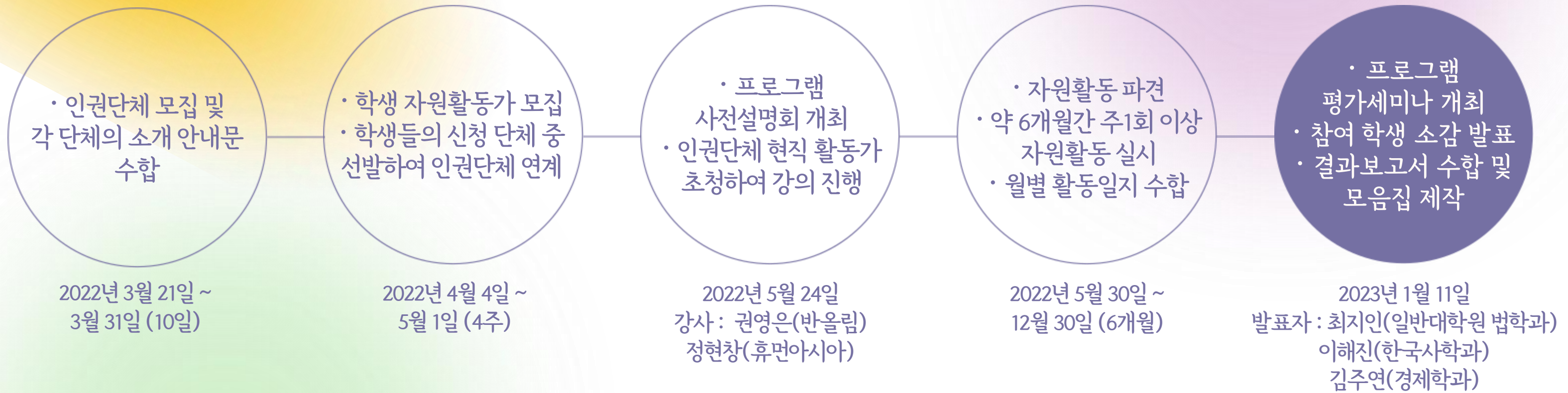


2022 자원활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모음집

프로그램 개요

2022 학생 - 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일 정	2022년 3월 3일 ~ 2023년 1월 31일 / 총 11개월
목 적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각 인권단체에서 약 6개월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 방식을 통해 인권단체의 고유하고 현실감 있는 활동 영역을 직접 경험하고 인권 사각지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인권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인권 감수성과 소양을 쌓는 것에 교육적 목적이 있다.
결 과	참여 학생 : 총 22명 / 대학원생 6명, 학부생 16명 참여 인권단체 : 총 10개



결과보고서 작성자

YULDASHEVA DILNOZA

국제민주연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이해진

국제민주연대 한국사학과

조윤진

노동건강연대 영어영문학과

노현빈

반올림 정치외교학과

김주연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경제학과

최지인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경림

경영학과

어필

이가영

사회학과

언론인권센터

조은아

행정학과

언론인권센터

장미나

물리학과

진실의힘

김채영

행정학과

피난처

국제민주연대

YULDASHEVA DILNOZA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가 마련해 준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2번 연속 참여했는데 아주 유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민주연대는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자원활동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얀마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1인 시위가 비효과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도 계속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1인 시위를 할 때 단 한명이라도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저에게 그만큼 의미 깊은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활동에서 1인 시위만큼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8월에 진행되었던 민주주의 행진입니다. 약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부터 약수역에 위치한 미얀마 대사관까지 3시간에 걸친 행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행진은 미얀마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활동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확실히 인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민주연대

이해진

저는 국제민주연대에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화 운동과 그에 대한 군부/정부의 탄압을 다룬 기사나 관련 자료를 번역하거나 서치했습니다. 가장 많이 접했던 사안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토론회, 포럼, 회의에 참관하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의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하는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제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되는 해결책과 한계점 등 몰랐던 사실들을 배운 것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이번 자원활동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권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사회체제와 분위기가 해당 국가의 인권 보장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불만이나 목소리들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권 보장 수준이 낮고, 인권침해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해당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워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에서의 인권 문제는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에서 국제적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조운진

인권과 노동이라는 단어의 개념만 아는 정도로 무지했던 상태에서 한 번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약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며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주로 노동건강연대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나 특강 등에 참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동에 대한 지식,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법으로 보장되기 시작하였는지에 관련한 배경과 역사, 이를 토대로 발전한 현대의 산재보험법 등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전혀 당연히 여겨지지 않던 역사 속 노동자의 투쟁으로 힘겹게 인정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음은 물론,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산재 보험이 결국 자본가들 스스로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역사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었으며 그렇기에 이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 복지 국가들의 상황과 한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 탐색하면서 노동 정책에 있어 외국의 복지 시스템을 단순히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 뿐 아니라 사용자,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깨닫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다원적인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반올림

노현빈

저는 주로 반올림 홈페이지 제작과 아카이빙 작업, 피해자 익명화 작업, 여러 행사 준비 및 진행, 홍보 자료 정리 및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여러 행사 중에 반올림 15주년 및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북토크 행사를 준비 및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기획, 준비, 진행 그리고 정리 과정까지 모두 상임활동가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자원활동가들만 진행되었던 이전 북토크와 다르게, 15주년 행사를 기념하여 그동안 반올림과 함께 반도체 산업에서의 산업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시위하고 투쟁하셨던, 피해자 유가족들을 포함한 다른 분들 약 50여 분과 기자님들까지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진행한 북토크에서는 '태아 산재' 문제와 관련한 책을 집필하신 작가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태아산재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생겼는데, 이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업 재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시간도 생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글로만 읽거나 소식으로만 들을 때는 그들의 이야기가 엄청 멀게 느껴지고, 연대하는 단체들도 그저 추상적인 단체들로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고 그 도움의 필요성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고, 단체의 역할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져서 놀라웠습니다.

MAP

김주연

처음에는 자원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였고, 초반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갔습니다. 저는 난민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바가 없었는데, 활동을 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뉴스레터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실태와 해외의 난민 사정, 여러 국제조약들, 법, 행정, 연구결과, 대중의 시선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팩트를 접하였습니다. 한국어학교를 진행하면서는 난민분들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사람책 도서관, 난민 뉴스, 장학 사업 등 단체의 다른 사업 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어떤 방식에서 난민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난민 분야나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험이 저의 세계를 더 넓혀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드’라는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팀에 있었는데요, 올해 마지막호로 top 기사를 뽑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뉴스레터가 발송되고 며칠 후에, 지난 여름방학에 다른 대외활동에서 만났던 친구가 혹시 이 사람 너야? 하면서 카톡이 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뿌듯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응, 나 MAP에서 자원활동가로 일하고 있어!”라고 답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MAP

최지인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겠다고 결정한 이후로 제 전공분야인 법과 관련된 인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책상에 앉아 공부만으로 인권 현장을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 센터가 준비해주는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6개월이었습니다. MAP에는 여러 경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주 직원들 뿐 아니라 약 스무 명에 달하는 동료 자원활동가들 모두 다양한 방면에서 높은 능력치를 갖춘 분들이었기에 지식과 태도 등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영어를 사용하는 업무’와 ‘난민 인권 현장에 가까이 가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주로 맡은 두 가지 중 ‘난민뉴스’라는 업무에서 영어와 현장을 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를 무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로 이 활동을 마치기에는 아직 더 배우고 싶은 게 많다는 생각에 MAP과 활동을 연장했습니다. 난민 뿐 아니라 그 어떤 인권 분야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막막함과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주변의 사람을 통해 마음을 풀어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MAP에 많이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 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해준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

어필

김경림

먼저 너무나 귀중한 기회를 주신 고려대학교 인권 성평등센터와 공익인권법센터 어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공익법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싶었지만 좀처럼 계기가 없었는데 덕분에 가장 근처에서 그분들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전을 들으며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의 특성상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이 있었어서 제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끝내고 보니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된 만큼 오프라인으로 사무실도 많이 방문하여 변호사님들과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분들의 업무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권 전반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막연히 학부를 졸업한 후 로스쿨에 진학하고 공익법 분야로 진출해야겠다는 아주 간략한 생각만 있었는데 직접 변호사님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법을 공부할 때도 실제 사례와 엮어서 법이 더 개선될 수 없는 분야는 없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외국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등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권 문제는 추상적인 목표의식과 더불어 아주 구체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문제를 위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 성평등센터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공익법 전문 법조인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이가영

언론인권센터에서 맡은 업무는, 첫째, 방송 보도 모니터링, 둘째, 언론보도 댓글 2차 피해 예방 캠페인, 셋째, 언론인권포럼 진행 보조, 넷째, 언론인권상 20주년 기념 영상 제작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언론인권상 20주년 기념 영상 제작 업무에서, 저는 천안함 생존 장병의 현재에 대해 보도한 정환봉 기자와 n번방 사건 공론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 추적단 불꽃의 불 박지현씨의 인터뷰 내용을 숙기하고, 해당 인터뷰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정환봉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인의 마음가짐에 대해 간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악이 시스템 내지는 구조에 스며들어 있기에 이를 발견하여 보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지 않은 부조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취재들을 하고 싶다는 포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인이 가진 고민들, 그리고 보다 나은 언론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렵듯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의 자원활동을 통해 언론 생태계의 선순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인권센터, 즉 시민단체의 역할을 알 수 있었고, 언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언론의 역할,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행태에 무분별한 비판만 가하기보다는 그들의 보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언론을 견제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조은아

저는 방송보도모니터링 업무를 하며 MBN 종합뉴스, JTBC 뉴스데스크, 채널 A 분석을 맡았습니다. 분석을 하면서는 해당 방송사들이 보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보다는 잘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할 때 특이사항이 없으면 '0'으로 코딩을 하고 넘어가는 반면, 보도 기준을 위반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로 코딩하고 그 사유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1'로 코딩할 일이 없다는 점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언론사들이 웬만해서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게끔 보도를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0'으로 표기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으나, 그렇다고 '1'로 확정적으로 판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1'로 표기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즉, 결국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별하는 일의 본질적인 속성이 단순히 위반과 비 위반으로 확정적으로 나누어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것이 결국 생활에서의 미세한 침범에서부터 명백한 인권 침해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 어느 한 부분부터는 침해이고 그 나머지는 침해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20주년 기념 영상 제작에 참여하여 17회 및 18회 수상자이신 한겨레 신문의 정환봉 기자님과 19회 수상자이신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님을 인터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보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도를 하셨는지 그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그 자체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의힘

장미나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저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 강제 노역, 구타, 성폭행, 암매장한 사건,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는 현안에 대한 피해 사실 규명 및 보상을 위해, 여러 자료 수집 및 사례 연구 과정에 있는 담당자분을 도와 해외 주요 자료 조사와 논문 번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국가 폭력 사례에 대한 흥미를 실제 사례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에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개인의 역량과 선택에 따라 배움의 폭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통치권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력이 제대로 견제되지 않은 독재 체제에서의 국가의 경우 국민을 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희생시키고 무의미 하도록 만들고 해쳤으며 이런 과거의 사건이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치 않아 잊혀 질 수도 있었고 이를 다시 기억하고 피해자 분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미래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시간과 기회 안에서 도움 될 수 있도록 활동 하고자 합니다.

피난처

김채영

피난처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의 수가 그토록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난민분들이 겪으신 종교, 파벌, 내전 등으로 인한 각종 비인간적 박해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피난처를 찾아오시는 난민분들은 대개 생활 지원이나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많지만, 난민 인정을 받는 비율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정부의 보호와 정책의 공백을 피난처와 같은 민간 단체가 채우는 실정인데,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피난처에서 맡은 업무는 뉴스 리서치와 난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저와 매칭된 난민분들과 영어 교육을 진행하면서 만약 저였다면 힘들고 절망스러웠을 상황 속에서도 화목함과 단단함을 갖고 살아가는 난민분들로부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활동 종료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나마 수업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난민분들은 언젠가 난민 보호소가 아닌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날을 위해 매일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분들이 자유롭게 행복한 곳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학생이라는 제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제게 너무 소중한 인연이 된 분들입니다.

피난처 선생님들께서는 자원활동가에게도 늘 의견을 구하시고 또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려대학교 학생분들이 피난처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 2022. 04. 04(월) ~ 05. 01(일) 4주 간

모집대상

- 고려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 인권단체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거나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학생

활동기간

- 2022. 05. 30(월) ~ 12. 30(금) 6개월
- 상기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신청방법

- 쿠카이브 KUchive
- 구글 링크



<https://forms.gle/TCs5p7NX9bXDmuXE9>

사전설명회

- 2022. 05월 넷째 주 예정
- 확정된 참가자는 반드시 참석 필요

단체소개

- 쿠카이브 KUchive
- 구글 링크



활동과정

자원활동가 신청 > 사전설명회 참여 > 자원활동 6개월 > 결과보고서 제출

문의사항

E. humanrights@korea.ac.kr
T. 02-3290-2842(9:30 ~ 17:00)



자원활동 프로그램 사전설명회

시간 (분)	내용	진행
17:00 - 17:10 (10)	프로그램 소개 및 제출서류 안내	인권·성평등센터 / 서예린
17:10 - 17:50 (40)	인권단체 소개 및 자원활동 안내_1	반올림 / 권영은
17:50 - 18:30 (40)	인권단체 소개 및 자원활동 안내_2	휴먼아시아 / 정현찬



자원활동가 모집 포스터

사전설명회 행사 사진

평가세미나 행사 사진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KOREA UNIVERSITY
The Center for Human Rights & Gender Equity